

2024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첫 학기, 따스한 글말교실을 마치며

이름	이용빈
전공	국제통상학과
학번	20240879
참여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type="checkbox"/> 글말특강 (-회차)

안녕하십니까, 교양대학 글말교실 소감문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국제통상학과 이용빈 학생입니다. 저는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던 도중 개요의 방향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생각에, 일대일 대면 코칭을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 제게 ‘교수님’이라는 이름의 힘은 매우 컸습니다. 대면 상담이 가까워질수록 독자에게 내 개요가 불품없을까 걱정되기도 했고, 교수님께서 어떤 피드백을 해주실 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글의 전문가이신 교양대학의 글쓰기 교수님과 함께 제 글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따뜻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저는 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한 편의 보고서를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말교실 프로그램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낀 저는 신청 과정부터 현재까지 느꼈던 바를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국민대학교에 입학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던 중 글쓰기는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주제와 목적이 정해진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저는 무언가를 기술하기 위해서, 혹은 아주 확고한 목적을 갖고, 필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글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기 위해 나만의 주제를 생각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겁게 다가왔지만, 글말교실 면담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곧은 이 가르침은 글쓰기 수업이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여러 관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단언 주제문을 작성하는 초반 단계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진 분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의 지식의 공백을 채울만한 멋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양의 참고할 만한 문헌이 있어야 하며 내가 해결책으로 내걸 그 방안이 이미 시도되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도입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간결하고 정확한 주제문을 작성하기 위한 수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담당 교수님과의 면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글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글을 풀어가야 하는지 독자와 저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글말교실을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공평하면서도, 이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말교실을 운영해주시고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교양 대학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